

실행이사회

제 6 차~제 9 차

제 6 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8. 7. 7(목) 07:30-09:00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참 석 : 회 장 : 노경병

부 회 장 : 이인수, 한용철, 신현탁, 김도영

실행이사 : 박찬무, 주양자, 박이갑, 박성덕, 김재호, 김영명, 김세민, 김용완, 윤대원,
김광연, 이성모, 계16명

(협의사항)

1. 일반 의료수가 인상억제 협조요청에 따른 대책 협의

경제기획원이 일반 의료수가를 '87. 1. 5 현재수준으로 환원토록 요구하고 불응시에는 고발조치 등 의법조치 하겠다는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토의한 결과, 그동안 보험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소폭인상되었을 뿐아니라 물가상승 및 노사분규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요인으로 일반수가의 인상이 부득이한 것인만큼 정부지시를 그대로 이첩시달할 것이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병원의 일반수가 인상이 법적으로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본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기로 하다.

2. 도시가스 사용 요구에 따른 대책 협의

환경청에서 '88. 9. 1부터 서울시내 일부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을 강행하려는 방침은 병원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경영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도시가스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절차 등을 확인한 다음 차기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김한욱 기획관리실장)를 하기로 하다.

3. 병원신보 활성화 대책 협의

현재 병원신보의 운영체계가 운영과 재무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홍보부회장을 중심으로 홍보이사 책임하에 재무사항과 운영을 일원화하여 모두 관장키로 하다.

4. 대한특수병원협회 설립에 따른 대책 협의

정신질환자를 위해 특수병원협회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경영주체와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병원들이 각각 상이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병원계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본회 산하의 「정신병원회」(가칭)로 두던지, 본회가 정신병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유도키로 하다.

제 7 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8. 7. 21(목) 17:30 - 19:00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참 석 : 회 장 : 노경병

부 회 장 : 이인수, 한두진, 김도영

실행이사 : 박찬무, 박성덕, 김재호, 김세민, 김용완, 윤대원, 이성모, 계11명

(협의사항)

1. 병원 노사분규 대책 협의

최근 회장단의 이화대학병원 노사분규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한 노경병 회장의 설명과 부산지역 병원의 노사분규 실태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고 협회차원에서의 수습 대책을 협의한 결과, 각 병원들의 노사분규에 협회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노사분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다만 「병원에서의 노사분규는 병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환자진료에 지장을 주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언론(신문사설) 및 대정부 접촉을 통한 간접적인 방안을 강구토록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산시 병원회에도 이러한 협회대책을 회신해 주기로 협의하다.

2. 병원 인사관리 담당자 연수교육 실시

병원 노사분규의 신속한 수습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동 연수교육 계획안에 대해 사무총장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실시하되 다만 「병원 노무관리 담당자」 대신 포괄적으로 「병원 인사관리 담당자」로 수정하고 동시에 병원 노조결성 현황 및 단체협약 내용 등을 파악하여 교육참가시 필요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공동 대처 방안을 강구키로 하다.

(승인사항)

1. 올리픽 선수단 위문 격려 승인

본회에서는 '88 서울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단을 위문키로 하고 위문금품 결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하다.

제 8 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8. 8. 4(목) 07:30 - 09:10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참석 : 회장 : 노경병

부회장 : 이인수, 한두진, 한용철, 신현탁, 김도영,

실행이사 : 박찬무, 박이갑, 박성덕, 김재호, 김영명, 김세민, 김용완, 김광연, 이성모,
계 15명

(협의사항)

1. 병원신보 광고 활성화 대책

병원신보 광고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행이사진에서 배전의 관심을 갖고 협조 지원키로 하다.

2. 협회비 납부율 제고

수련심사비에 비해 협회비 납부율이 저조하므로 사무국에서 협회비 미납 병원들을 독려하여 납부율을 제고시키기로 하다.

3. 사무국직원 정원표 개정(안) 심의

개정안 가운데 제2안은 현실적으로 중원이 어렵기 때문에 제1안(현 정원내에서 직급만 상향 조정)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심의하되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키로 협의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하다(비공개 심의).

(승인사항)

1. 병원 세제개선 건의(안) 승인

병원 세제개선 건의(안)에 대한 사무총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건의(안) 내용문안을 어휘면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을 회장단에 위임키로 하고 동 건의(안)을 승인하다.

제 9 차 실행이사회

○일 시 : 1988. 8. 11(목) 19:00-22:30

○장 소 : 본회 소회의실

○참 석 : 회 장 : 노경병

부 회 장 : 이인수, 한용철, 한두진, 신현탁, 김도영,

감 사 : 김광태

실행이사 : 김용완, 김세민, 김영명, 박성덕, 이성모

사 무 국 : 사무총장외 1명(박상우) 계14명

(결의사항)

1. 병원진료권 보장 건의서 채택

최근 청구성심병원에서 발생된 환자가족 집단 난동사건은 병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 후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당해 병원에서도 관할경찰서에 고발토록 촉구하는 한편 회장단에 내무부 장관 및 치안본부장을 방문하여 엄중히 항의키로 하다.

다 음

첫 째 : 병원에서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진료권을 보장하고 치안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

둘 째 : 병원에서의 기물파괴나 난동은 손해배상은 물론 진료방해 행위라는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

세 째 : 병원에서의 난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금번 청구성심병원 난동자를 색출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실 것.

2. 올림픽 지원 구급차 구입 협조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개발된 구급차가 종래 구급차에 비하여 석손장치 등 구비할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지원에 협조한다는 뜻에서도 연내 교체 또는 신규 구매계획을 갖고 있는 병원들은 본 차종을 구입토록 권장키로 협의하다.

3. 본회 연구시설 설치 안 연구 검토

날로 폭주하고 있는 병원계의 현안과제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회에도 전문연구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노회장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긍하면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협의하다. *